

소고당 고단 <88올림픽찬가(讚歌)>의 내용과 작가의식*

김아연**

차 례

1. 머리말
2. <88올림픽찬가(讚歌)>의 개관
3. <88올림픽찬가(讚歌)>의 내용
4. <88올림픽찬가(讚歌)>의 작가의식
5. 맺음말

|국문초록

소고당(紹古堂) 고단(高端, 1922~2009)은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Games of the XXIV Olympiad Seoul 1988, 이하 88올림픽)를 소재로 하여, 1988년 가을에 172행 분량의 가사 <88올림픽찬가(讚歌)>를 지었다. 이에 <88올림픽찬가>는 시기상 현대가사, 작가상 여성가사, 내용상 행사가사, 분량상 장편가사에 해당한다. <88올림픽찬가>의 내용은 88올림픽의 기본 이념, 참가 규모, 서울 유치, 준비 과정, 개최식, 경기 결과, 에피소드, 이슈, 폐회식, 성과 및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비에 대한 의지로 파악된다. <88올림픽찬가>의 작가의식은 사실 지향적 기록의식, 국제화 의식 및 세계시민 의식, 민족의식 및 남북통일예의 염원, 국가주의 세계관 등 네 가지로 대별된다.

핵심어 : 소고당, 고단, 88올림픽찬가, 행사가사,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88올림픽)

* 이 논문은 2021년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내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2021-2-1).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1. 머리말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이하 88올림픽)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대한민국 서울 일대에서 치러졌다. 소고당(紹古堂) 고단(高 端, 1922~2009)은 88올림픽이 개최된 그해 가을에 88올림픽을 소재로 가사 <88올림픽찬가(讚歌)>를 지었다.

<88올림픽찬가>는 『紹古堂歌辭集』¹⁾과 『平化四時詞-소고당 고단 규방 가사 선집』²⁾에 수록되어 있다. 『紹古堂歌辭集』³⁾에 수록된 <88올림픽찬가>의 원문 이미지는 한국가사문학DB(<http://gasa.go.kr/>)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³⁾

<88올림픽찬가>에 관한 개별 작품론은 미비한 편이다. 다만, 허미자가 현대 여성가사 작품의 일부로서 <88올림픽찬가>를 다룬 연구 성과와 박요순, 성낙희가 고단 가사 작품의 일부로서 <88올림픽찬가>를 다룬 연구 성과가 있을 따름이다. 허미자⁴⁾는 <88올림픽찬가>에 활용된 시어인 ‘올림픽’, ‘팡파르’, ‘바텐바덴’, ‘아이오씨’, ‘심볼마크’, ‘호돌이’, ‘카드섹션’ 등을 예시로 들어 고단의 현대의식을 구명하였다. 성낙희⁵⁾는 고단 가사의 수사적 특성 중 하나인 민요풍 호환법이 <88올림픽찬가>에도 활용되었고, 고단이 88올림픽 관계자, 선수 등 남녀노소 내외국인을 <88올림픽찬가>에 등장시켰음을 밝혔다. 박요순⁶⁾은 <88올림픽찬가>에 고단의 문화담미의식이 반영되어 있고, 고단이 ‘88올림픽’이라는 화소(話

1) 고단, 『紹古堂歌辭集』上, 『紹古堂閨房歌辭集』 卷之上, <88올림픽찬가(讚歌)>.

2) 고단, 『平化四時詞-소고당 고단 규방가사 선집』, 장흥별곡문학동인회 편, 시와 사람, 2013, 93~101쪽.

3) 고단, 『紹古堂歌辭集』上, 『紹古堂閨房歌辭集』 卷之上, <88올림픽찬가(讚歌)>, 한국가사문학관 한국가사문학DB, <http://gasa.go.kr/>(검색일 : 2021년 1월 21일)

4) 허미자, 「現代 女性歌辭에 나타난 傳統意識-趙愛泳·高端-」, 『돈암어문학』 8, 돈암어문학회, 1996, 36~37쪽.

5) 성낙희, 「紹古堂歌辭論」, 『지역학논집』 3,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1999, 164쪽.

6) 박요순, 「紹古堂 高端과 그의 歌辭研究」, 『한남어문학』 30,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6, 25~26쪽.

素)를 344구 안에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88올림픽의 감동과 현장의 분위기를 살려냄으로써 전통의 바탕 위에서 현대적 수용을 이루어냈음을 논구하였다.

<88올림픽찬가>는 ‘88올림픽’이라는 국제스포츠대회를 다룬 행사가사라는 점에서 가사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그럼에도 <88올림픽찬가>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단 가사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고단 가사의 개별 작품에 관한 연구보다는 고단 가사의 작품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⁷⁾나 은촌(隱村) 조애영(趙愛泳)의 가사, 소정(素亭) 이휘(李輝)의 가사와 더불어 현대 여성가사로서의 연구⁸⁾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글은, <88올림픽찬가>의 내용과 작가의식을 고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의 2장은 논의의 예비적 단계로서 <88올림픽찬가>를 개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88올림픽찬가>의 서술단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88올림픽찬가>의 작가의식을 구명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글은 <88올림픽찬가>가 ‘가사’라는 전통 시가 장르를 계승하면서 ‘88올림픽’이라는 현대적 소재를 수용하여 현대인과 호흡하는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88올림픽찬가(讚歌)>의 개관

올림픽의 목적은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데 모여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

7) 성낙희, 앞의 논문; 박요순, 앞의 논문; 정인숙, 「소고당가사에 나타난 ‘평화’ ‘고현’ ‘산외’의 장소성과 그 의미」, 『국제어문』 81, 국제어문학회, 2019.

8) 허미자, 앞의 논문; 김정화, 「隱村, 紹古堂, 素亭 歌辭의 主題 具現 樣相과 形態論의 研究」, 『동아인문학』 12, 동아인문학회, 2007; 김정화, 「현대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과 시사적 의미: 광복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정인숙, 「근현대 여성 가사에 나타난 역사서술의 특징과 그 의미-은촌 조애영, 소고당 고단, 소정 이휘의 작품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54, 한국고전문학회, 2018; 김기영, 「<제주도(濟州道) 기행(紀行)>과 <제주여행가>의 작품 실상과 현대적 의미」, 『어문연구』 102, 어문연구학회, 2019.

고 정당하게 승부를 거름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소양과 신체를 단련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며 인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다. 곧 올림픽은 단순히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 제전을 넘어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실현하고 화합을 다지는 장(場)인 것이다. 따라서 1988년에 세계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는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88올림픽을 소재로 <88올림픽찬가(讚歌)>를 지었다. ‘88올림픽찬가(讚歌)’라는 제목은 ‘88올림픽’과 ‘찬가(讚歌)’가 결합된 것이다. 곧 <88올림픽찬가>는 인류 평화의 제전인 88올림픽을 기리는 노래인 것이다. <88올림픽찬가>는 4음보 1행의 율격이 정연한 172행으로 지어졌다. 작가는 88올림픽을 기록하고 88올림픽에 관한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길게 서술하기 위해 4음보 연속체인 가사 양식을 채택하였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88올림픽찬가>의 갈래는 시기상 현대가사, 작가상 여성가사, 내용상 행사가사, 분량상 장편가사로 분류할 수 있다.

<88올림픽찬가>는 8개의 서술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 1>는 <88올림픽찬가>의 서술단락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88올림픽찬가(讚歌)>의 서술단락

단락 구분	행 번호	내용
제1단락	1~8	88올림픽의 기본 이념 및 참가 규모
제2단락	9~41	88올림픽의 서울 유치, 준비 및 개최식 개최
제3단락	42~87	88올림픽 전반의 경기 결과, 선수 및 선수 가족에 대한 에피소드
제4단락	88~98	화자의 감기 몸살 및 88올림픽 기록에 대한 어려움
제5단락	99~119	벤 존슨의 약물 복용 사건
제6단락	120~130	다가오는 88올림픽 폐막에 대한 아쉬움 및 88올림픽 이슈
제7단락	131~164	88올림픽 폐회식
제8단락	165~172	88올림픽의 성과 및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비에 대한 의지

위의 <표 1>와 같이, <88올림픽찬가>의 제1단락은 88올림픽의 기본 이념과 참가 규모를 언급한다. 제2단락부터 제7단락은 88올림픽의 서울 유치, 준비과정, 개회식, 경기 결과, 각종 에피소드와 이슈, 폐회식 등 88올림픽에 얽힌 사실을 재현한다. 제8단락은 88올림픽의 성과 및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비에 대한 의지로 마무리한다. 8개 서술단락 중 제1단락을 서사라고 한다면, 제2단락부터 제7단락은 본사, 제8단락은 결사가 된다. 이처럼 <88올림픽찬가>는 8개 서술단락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88올림픽찬가>의 서사단락별 분량과 비율을 살펴보면, 제1단락은 8행(4.7%), 제2단락은 33행(19.2%), 제3단락은 46행(26.7%), 제4단락은 11행(6.4%), 제5단락은 21행(12.2%), 제6단락은 11행(6.4%), 제7단락은 34행(19.8%), 제8단락은 8행(4.7%)이 할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가 88올림픽 개회식(제2단락), 88올림픽 전반기 경기 결과(제3단락), 벤 존슨의 약물 복용 사건(제5단락), 88올림픽 폐회식(제7단락) 등 굵직한 행사나 이슈를 비중 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행사가사인 <88올림픽찬가>는 작가 개인이 기록한 ‘88올림픽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3. <88올림픽찬가(讚歌)>의 내용

1) 제1단락 : 88올림픽의 기본 이념과 88올림픽의 참가 규모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1~4행을 인용한 것이다. 한편, 인용문으로 제시한 원문의 왼쪽에 숫자를 기입하였는데, 숫자는 필자가 붙인 작품의 행 번호이다.

- 1 이보소 여러분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 2 무진(戊辰)년 이땅위에 올림픽 잔치러니
- 3 단군국조(檀君國祖) 개국이래 처음있는 경사로다
- 4 우리함께 이문축제 그모양이 장관일세

5 서울하늘 올려피진 화합의 광파르에
 6 손에손을 맞잡고 백육십개 나라에서
 7 이만명 젊은이들 인종종교 다르지만
 8 오직하나 세계정신 오륜(五輪)으로 통했것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세계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은 4년마다 1번씩 개최된다. 그런데 1988년 무진년(戊辰年)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이에 화자는 88올림픽을 “잔치”(2행), “단군국조(檀君國祖) 개국이래 처음있는 경사”(3행), “축제”(4행)로 인식한다.

화자는 88올림픽 잔치의 “그모양이 장관일세”(4행)라고 언술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나서 화자는 88올림픽이 “서울하늘 올려피진 화합의 광파르”(5행)로 시작하였음을 알린다. 여기에서 “화합”은 88올림픽의 기본 이념인 ‘화합과 전진(Harmony and Progress)’ 중 ‘화합’을 표현한 것이다. 화합은 88올림픽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키워드였다.⁹⁾

한편, 올림픽에는 이데올로기나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1980년 7월 19일~8월 3일)에는 미국, 대한민국 등 자유주의 진영 국가가 대거 불참하였고,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1984년 7월 28일~8월 12일)에는 소련 등 공산주의 진영 국가가 대거 불참하였다.¹⁰⁾ 이처럼 88올림픽 이전 대회는 냉전(冷戰)으로 인해 양 진영이 올림픽 보이콧(Olympics boycott)을 하였다.

그런데 88올림픽 개최 시기는 냉전 시대가 저물어가던 때였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The World to Seoul, Seoul to the World)’라는 슬로건(slogan)을 내건 88올림픽에는, 167개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9) “Harmony and progress” in the land of morning calm,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News, 14 Sep 2007, <https://olympics.com/ioc/news/-harmony-and-progress-in-the-land-of-morning-calm>(검색일 : 2021년 7월 13일)

10) 1984 로스앤젤레스올림픽, 88올림픽,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 당시에 동독, 소련 등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의 참가 현황은 『88 올림픽과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8, 58쪽 <표> 공산 진영 국가들의 올림픽 참가 현황 참조.

NOC 중 대한민국을 포함한 160개국 1만 3,626명 선수·임원이 참가하였다.¹¹⁾ 화자는 88올림픽 참가 규모에 대해 “백육십개 나라”(6행), “이만명 젊은이들”(7행)이라고 언술한다. 그리고 “백육십개 나라”(6행)의 “이만명 젊은이들”(7행)이 이념,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서울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화자는 이들이 “오륜(五輪)”(8행) 마크가 상징하는 ‘올림픽’으로 통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2) 제2단락 : 88올림픽의 서울 유치, 준비 및 개회식 개최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9~14행을 인용한 것이다.

- 9 一九八一年 바덴바덴 아이오씨(IOC) 총회에서
- 10 올림픽 유치가 서울로 결정된후
- 11 배달겨레 모은정(情)이 호돌이 낮이되어
- 12 올림픽 심볼마크 귀염동이 호돌이랑
- 13 우리국민 한마음에 불철주야 준비할제
- 14 그리이스 헤라신전 성화가 채화되어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8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 총회에서 88올림픽 서울 유치가 확정되었다(9~10행). 그 이후 7여 년 동안 88올림픽 준비 과정이 이루어졌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이하 SOOC)는 한국신문협회·중앙일보사의 후원으로 「88올림픽 표장·마스코트 현상공모」를 1982년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시행하였다.¹²⁾ 이때 응모된 총 4,344장의 엽서 중 최고 득표를 한 호랑이를 선정하여¹³⁾ 88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11행,

1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백서 : SEOUL 1988』, 서울특별시, 1990, 146쪽.

12) 「88올림픽 표장·마스코트 현상공모」, 『중앙일보』, 1982년 9월 23일, <https://news.joins.com/article/1654912>(검색일 : 2021년 1월 21일); 「88올림픽 표장공모조직위서 30일까지」, 『중앙일보』, 1982년 12월 11일, <https://news.joins.com/article/1667100>(검색일 : 2021년 1월 21일)

13) Seoul 1988 The Mascot, <https://olympics.com/en/olympic-games/seoul-1988/mascot>(검색일 : 2021년 1월 21일)

12행)를 제작하였다. 또한 88올림픽 개최를 앞둔 1988년 8월 23일에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88올림픽 성화를 채화하였다(14행).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15~41행을 인용한 것이다.

- 15 최종주자 임춘애(林春愛)가 평화(平和)의불 밝혀드네
- 16 올림픽 성화대에 불꽃높이 타오를때
- 17 땀흘린 우리겨레 감동에 떨어구나
- 18 세계인의 만남위해 오륜대회 막(幕)오르니
- 19 가나다라 순서대로 각국선수 입장하여
- 20 잠실벌에 모여드는 오십억 지구가족
- 21 체제이념 초월하니 그얼마나 기쁠소나
- 22 박세직(朴世直) 위원장은 대회를 낭독하고
- 23 사마란치 위원장은 환영사로 축하하니
- 24 노대통령 힘찬말씀 개최선언 아니던가
- 25 오륜기 게양되니 흥분과 열기절정
- 26 맨마지막 한국기수 우뚝쳐든 태극기에
- 27 나의조국 코리아여 그대이름 기록할사
- 28 온국민은 그모습에 감격하여 눈물짓네
- 29 한강(漢江)에선 강상제(江上祭)가 그위용을 드러내고
- 30 집채같은 큰용고(龍鼓) 일천이백 작은북
- 31 자지러진 합창뚝고 토하노니 우뢰굉음
- 32 뒷풀이는 고공낙하(高空落下) 일흔여섯 낙하산이
- 33 오륜마크 그리면서 하늘에서 하강할제
- 34 강복기원(降福祈願) 차일(遮日)춤이 그림같이 착륙하니
- 35 가슴죄며 지켜보던 십만관중 탄성탄성
- 36 코리아나 리듬속에 멋들어진 올림픽가
- 37 온누리에 퍼져가는 우리의 노랫소리
- 38 이것이또 무엇이나 관중들의 카드섹션
- 39 세계의 마스크림 날카로운 주시속에
- 40 초록빛 운동장 푸른하늘 새하얀옷

41 윤희용 우리아기 굴렁쇠가 귀엽구나

88올림픽 개회식¹⁴⁾은 1981년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서울종합운동장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밖 한강에서 열린 “강상제”(29행)를 시작으로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안에서는 무용수들이 “88”, “WELCOME”, “어서오세요”, “서울올림픽”, 삼태극, 오륜, 88올림픽 표장(emblem)을 그리는 “마스게임”(39행)이 있었다. 이어서 국가명 가나다 순으로 각국 선수단이 입장하였고(19행), 개최국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마지막에 입장하였다(26행).

선수단 입장 이후에 박세직(朴世直) SOOC 위원장의 대회사(22행),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 IOC 위원장의 환영사(23행),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의 개회 선언(24행)이 있었다. 개회 선언 후에 관중들이 88올림픽의 기본 이념인 “HARMONY”를 표현하는 카드섹션(38행)이 있었고, 올림픽기, 곧 “오륜기”(25행)가 계양되었다. 이어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孫基禎)이 입장하여 “평화(平和)의불”(15행)인 성화를 성화 최종 주자인 임춘애(林春愛)에게 넘겨주었고, 임춘애는 성화 점화자인 김원탁(마라토너)·정성만(소흑산도 초등학교 교사)·손미정(서울예술고등학교 무용과 3학년 학생)에게 성화를 넘겨주었으며, 이들에 의해 성화가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올림픽 성화대에서 타오르게 되었다(16행).

선수단 퇴장 이후에 뒷마당 잔치가 열렸다. ‘강복과 차일춤’, ‘화관무’로 구성된 <좋은날>을 시작으로 <혼돈>, <벽을 넘어서>, <정적>, <새싹>, <화합>, <한마당> 순으로 공연이 이어졌다. 그중 ‘강복과 차일춤’, <정적>, <한마당>이 <88올림픽찬가>에 재현되어 있다. ‘강복과 차일춤’은 강복(康福)을 기원하는 춤으로 시작하는데, 이 춤이 끝나는 무렵에 패러슈터(parachuter) 76명이 공중에서 오륜을 그린 후 낙하산을 타고 하강하는 곡예 비행, 보자기로 차일을 표현하여 잔치를 알리는 차일춤으로 구성되었다(32~35행). <정적>은 새하얀

14) 88올림픽 개회식 행사의 순서와 내용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백서 : SEOUL 1988』, 서울특별시, 1990, 81쪽 참조.

웃을 입은 윤태웅 어린이가 굴렁쇠를 굴리며 초록빛 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것이었다(40~41행). <한마당>은 그룹 코리아나(Koreana)가 88올림픽 공식노래인 <손에 손잡고(Hand in Hand)>를 부르며 개회식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36~37행).

3) 제3단락 : 88올림픽 전반의 경기 결과, 선수 및 선수 가족에 대한 에피소드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42~61행을 인용한 것이다.

- 42 개막식이 끝난후에 여기저기 경기장서
- 43 기합소리 박수소리 무엇부터 불꺼나
- 44 이것도 보고싶고 저것도 보고싶고
- 45 이몸이 열개라도 모자라고 안타깝다
- 46 여기가 어디냐 물소리가 요란쿠나
- 47 물찬제비 여기있다 수영장이 들석이네
- 48 미국선수 에번스가 여자혼영 결승에서
- 49 여유있게 골인하니 금메달 일호로다
- 50 미국의 미셸미셸 비틀어 몸돌리기
- 51 소련의 스타슈레비치 날으는 새처럼
- 52 중국의 슈엔메이 한바퀴 반만돌고
- 53 미녀들의 다이빙도 그림같고 황홀하다
- 54 어화뒤야 흥이절로 우리선수 어디있나
- 55 에밀레종 은은하게 우리선수 승승장구
- 56 김광선(金光善) 변정일(邊丁一)의 복싱경기 첫승리
- 57 레스링의 안대현(安大鉉)도 쾌조의 스타트라
- 58 역도의 작은거인 전병관(全炳寬)을 불러치면
- 59 불끈쫄은 그투지에 불타는 신념의눈
- 60 이백하고 육십키로 거뜰히 들어올려
- 61 은메달 목에거네 홀륭하다 대견하다

화자는 88올림픽 전반에 미국의 자넷 에반스(Janet Evans)가 금메달을 획득

한 여자 400m 혼영 결승(46~49행), 미국의 미셸 미첼(Michele Mitchell), 소련의 안젤라 스타슈레비치(Anjela Stassioulevitch), 중국의 쑤 안메이(許艷梅) [슈엔메이]가 출전한 여자 다이빙 플랫폼(50~53행)을 보았다.

화자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도 챙겨 보았다. 화자는 “김광선(金光善) 변정일(邊丁一)의 복싱경기 첫승리”(56행)라고 언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김광선은 플라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지만, 변정일은 밴텀급 1차전에서 탈락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56행은 작가가 김광선, 변정일의 경기 결과보다는 그들이 레슬링에서 첫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자는 안대현(安大鉉)이 레슬링 62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경기(57행),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전병관(全炳寬)이 260kg의 바벨을 들어 역도 52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경기도 보았다(58~61행).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66~80행을 인용한 것이다.

- 66 금메달이 쏟아지네 얼굴한번 살펴보세
- 67 역도의 그라블레프 호주수영 암스트롱
- 68 동독수영 오토선수 전력투구 결과로다
- 69 기대하던 첫금메달 김영남(金永南)이 해냈구려
- 70 레슬링에 청춘바친 함평(咸平)사내 해냈구려
- 71 차영철(車榮哲)의 사격솜씨 은메달에 명중하고
- 72 유도왕자 하형주(何亨柱) 일본아성 깨뜨리소
- 73 김재엽(金栽燁)의 금메달은 멋진승부 드라마요
- 74 부전자전 유도집안 이경근(李璟根)도 금메달
- 75 그동생도 유도선수 대구(大邱)골 경사났네
- 76 중국탁구 간판스타 자오즈민 진정(陳靜)조(組)가
- 77 양영자(梁英子) 현정화(玄靜和)의 환상적인 그솜씨에
- 78 감당할길 전혀없지 한수배워 물러가네
- 79 유도탁구 경기장에 태극기가 높이올라
- 80 중국탁구 일본유도 고개숙여 눈물짓네

화자는 본격적으로 금메달리스트를 언급한다. 역도 56kg급 불가리아의 선수 미트코 그라블레프(Mitko Grablev)¹⁵⁾(67행), 수영 남자 200m 자유형 호주의 선수 딘컨 암스트롱(Duncan Armstrong)(67행), 수영 여자 100m 자유형·여자 100m 배영·여자 100m 접영·여자 50m 자유형·여자 4×100m 계영·여자 4×100m 혼계영을 석권한 동독의 크리스틴 오토(Kristin Otto)(68행), 레슬링 74kg급에서 대한민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김영남(金永南)(69~70행), 유도 엑스트라 라이트급 60kg 이하의 김재엽(金栽燁)(73행), 유도 하프라이트급 65kg 이하의 이경근(李璟根)(74~75행), 여자 탁구복식의 양영자(梁英子)·현정화(玄靜和)조(77~78행)가 그것이다.

화자는 금메달리스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격 남자 소구경 자유 소총 복사의 은메달리스트인 차영철(車榮哲)(71행), 일본의 아성을 깨뜨리기를 기원하면서 유도 헤비급 95kg 이하의 하형주(何亨柱)(72행)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62~65행을 인용한 것이다.

- 62 미국의 육상선수 그리피스 조이너
- 63 달리는 패션모델 젊음의미 찬미하고
- 64 왕년의 농구스타 박찬숙(朴贊淑)의 백의종군
- 65 반가워라 든든해라 박찬숙 파이팅

화자는 특정 선수에 얽힌 에피소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여자 100m·여자 200m·여자 4×1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의 육상 선수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Florence Griffith Joyner)는 실제로 패션모델이자 의상디자이너이기도 하였다. 미(美)를 추구하였던 그리피스는 화려한 복장으로 등장하여 레이스를 벌였

15) 미트코 그라블레프(Mitko Grablev)는 IOC 금지약물인 필로시미드(체중감량제)가 검출되어 1988년 9월 22일에 금메달을 박탈당하였다. 그라블레프의 약물 복용 및 그에 대한 처분에 관한 내용은 「88서 첫 금메달 박탈」, 『중앙일보』, 1988년 9월 22일; 「약물복용한 불가리아 그라블라제, 올림픽 첫 금메달 박탈」, MBC뉴스, 1988.9.22., https://imnews.imbc.com/replay/1988/nwdesk/article/1814123_29513.html(검색일 : 2021년 5월 30일)

기 때문에, 88올림픽 당시에 “달리는 패션모델”(63행)이라는 별명을 얻었다.¹⁶⁾

또한 당대에 대만 농구 실업팀에서 플레이 코치(playing coach)로 활동하던 대한민국의 농구선수 박찬숙(朴贊淑)은, 대한민국 여자 농구 대표팀의 센터 라인을 보강하기 위해 대표팀 선수로 합류하였다.¹⁷⁾ 이러한 의미에서 화자는 박찬숙이 “백의종군”(64행)한다고 언술하고, 동시에 “반가워라 든든해라 박찬숙 파이팅”(65행)이라고 말하면서 박찬숙을 응원한다.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74~75행 및 제81~87행을 인용한 것이다.

74 부전자전 유도집안 이경근(李璟根)도 금메달

75 그동생도 유도선수 대구(大邱)골 경사났네

(중략)

81 올림픽엔 남녀노소 구분없이 참여하니

82 한집안 가족선수 가문을 빛내는데

83 영국의 부부선수 자유소총 명사수라

84 금메달 목에거니 일심동체 부럽구려

85 이태리의 스타치올라¹⁸⁾ 그의딸 줄리아

86 아버지는 조각출품 따님은 체조선수

87 가족모두 입상하니 이아니 자랑일까

88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그의 가족에 관한 일화이다. 먼저, “부전자전 유

16) 『중앙일보』 1988년 9월 26일 기사에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Florence Griffith Joyner)의 화려한 패션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상반신의 탱크톱에 하반신의 타이츠를 연결한 원피스와, 왼쪽다리는 허벅지에서 잘라 비키니 팬츠를 만든 ‘원레그’(외다리) 런닝복을 착용하기도 하며 망무늬의 트레이닝복으로 등장, 레이스를 벌이기도 한다. (중략) 이외에도 아이세도에 대형귀걸이, 색색의 매니큐어, 금팔찌, 여기에 독특한 선글라스 등 그녀는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알고있다.”(“달리는 미녀스타 ‘그리피스’ 서울서 “위대한 탄생”, 『중앙일보』, 1988년 9월 26일)라고 보도된 바 있다.

17) 「박찬숙, 대만으로 떠나», 『중앙일보』, 1988년 1월 20일; 「대만진출 박찬숙소속팀해체 이적», 『중앙일보』, 1988년 6월 1일; 「대만진출 박찬숙 대표센터로 복귀», 『중앙일보』, 1988년 6월 9일.

18) ‘스타치올라’는 마우로 스타치올리(Mauro Staccioli)의 성(姓)을 표기한 것인데, ‘스타치올리’의 오기(誤記)이다.

도집안”(74행)은 유도 하프라이트급 65kg 이하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경근의 가족이 유도인임을 말한다. 실제로 이경근의 아버지인 이석도를 비롯하여 이경근의 5형제가 유도인이고, 6인의 단수를 합하면 총 28단이였다.¹⁹⁾ 그리고 이경근의 동생인 이승근은 영신고등학교 유도부 주장이기도 하였다(75행).²⁰⁾ 이처럼 이경근의 가족이 대를 이어 유도를 하기 때문에, 화자는 이에 대해 그의 고향 대구의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한다(75행).

다음으로, 자유소총 종목에 참가한 부부 선수는 말콤 쿠퍼(Malcolm Cooper), 사라 쿠퍼(Sarah Cooper)이다.²¹⁾ 남편인 말콤 쿠퍼는 소구경 자유소총 3자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84행). 아내인 사라 쿠퍼는 여자 공기소총에 출전하였지만, 33위에 그쳤다. 화자는 금메달을 획득한 남편 말콤 쿠퍼에게 “자유소총 명사수”(83행)라고 명명하였다.

끝으로, 부녀(父女) 관계인 이탈리아 조각가 마우로 스타치올리(Mauro Staccioli), 이탈리아 리듬체조 국가 대표 선수인 줄리아 스타치올리(Giulia Staccioli)이다. 마우로 스타치올리는 88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1차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움(1987년 7월 3일~8월 20일)에 참가하여 조형물 <서울 88 올림픽(Seoul 88 Olympics)>(콘크리트, 37.5m×2m×27.5m, 1987)을 출품하였고²²⁾, 그의 딸인 줄리아는 리듬체조 종목에서 종합 18위를 차지하였다(85행).

4) 제4단락 : 화자의 감기 몸살 및 88올림픽 기록에 대한 어려움²³⁾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88~98행을 인용한 것이다.

19) 「(7)유도 이경근선수 가족」, 『중앙일보』, 1989.1.24.

20) 「(7)유도 이경근선수 가족」, 『중앙일보』, 1989.1.24.

21) 「세계신기록 6번이나 경신·부인도 명사수」남 소구경 소총 쿠퍼, 『중앙일보』, 1988년 9월 23일.

22)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백서 : SEOUL 1988』, 서울특별시, 1990, 1372쪽 및 1373쪽 사진 「서울88」(스타치올리/이탈리아) 참조. 한편, 마우로 스타치올리의 <서울 88 올림픽>은 현재 올림픽공원(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입구에 전시되어 있다.

23) <88올림픽찬가> 8개 단락 중 제4단락은 화자가 감기 몸살에 걸려 88올림픽을 기록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드러낸다. 이는 판소리사설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개입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판소리에 대한 작가 고단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88 관중석은 즐거우나 선수들은 힘이들고
- 89 올림픽을 기념하러 구석구석 적으려니
- 90 감기몸살 오욕일에 좋은경기 다놓쳤네
- 91 이보오 여러분네 재치없다 웃지마소
- 92 무딘감각 더딘붓은 정신마저 아찔해서
- 93 내나이 헤아리니 칠십에서 셋이없네
- 94 옥색치마 흰저고리 남끝동 자주고름
- 95 규중부인(閨中婦人) 안목으로 흑백황색(黑白黃色) 각국선수
- 96 꼬부랑글씨 긴이름 기억하기 어려워라
- 97 아프리카 높은고지 케냐선수 검은돌푹
- 98 육상에서 잘도달려 금메달을 잘도판다

화자는 88올림픽 구석구석을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 5~6일 동안 감기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게다가 화자는 정신마저 아찔하였고, 67세의 노구로 피부색이 다른 각국 선수들의 영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로써 화자는 88올림픽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한다. 그럼에도 화자는 88올림픽을 기록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검은돌푹”(97행)을 일으킨 케냐의 육상 금메달리스트²⁴⁾를 언급하는 일은 이를 입증한다.

5) 제5단락 : 벤 존슨의 약물 복용 사건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99~119행을 인용한 것이다.

- 99 가을이 깊어가네 메달풍년 애기풍년
- 100 어느덧 올림픽도 종반으로 치닫고
- 101 쏟아지는 묘기백출 형언을 다못하네
- 102 금메달에 거는기대 만국기가 갖가지라

24) 88올림픽에 출전한 케냐의 육상 선수 중 금메달리스트는 남자 800m의 폴 에랭(Paul Ereng), 남자 1,500m의 피터 로노(Peter Rono), 남자 5,000m의 존 응구기(John Ngugi), 남자 3,000m 장애물의 줄리우스 카리우키(Julius Kariuki) 등 4명이다.

- 103 소련의 남자배영(背泳) 우승자는 폴리안스키
- 104 미국의 비온디도 수영에 자신있네
- 105 벤존슨의 금메달은 감격도 한순간에
- 106 약물복용 알려지니 이무슨 변고인가
- 107 나라의 불명예요 개인의 수치로다
- 108 캐나다수상 멀로니가 유감의뜻 발표했네
- 109 우승보다 참된최선 올림픽의 정신일세
- 110 체조장은 미(美)와기(技)가 한데얼려 이뤄지니
- 111 어와세상 사람들아 이런묘기 본적있소
- 112 슈슈노바 풍만한몸 뛰어난 순발력에
- 113 실리바스 고운몸매 그림같은 연기력이
- 114 정확하고 선명한건 피땀흘린 노력이라
- 115 체조여왕 미의대결 막상막하 황홀하다
- 116 여기는또 어디냐 화랑도의 후손봐라
- 117 활시위에 마음실어 쓰느니 십점만점
- 118 양궁천재 김수영²⁵⁾(金水寧)의 이관왕에 세계기록
- 119 남녀모두 단체전서 세계시선 끝었구나²⁶⁾

88올림픽 대회가 종반으로는 접어드는 가운데 캐나다의 벤 존슨(Benjamin Jonson)의 약물복용 사건이 일어났다. 육상 남자 100m에 출전하였던 존슨은 1988년 9월 24일에 금메달을 획득하였지만, IOC에서 금지약물로 발표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탓에 IOC는 3일 뒤인 1988년 9월 27일에 그의 금메달을 박탈하였다.²⁷⁾ 이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하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 일이었다.

화자는 88올림픽 참가국이라면 금메달에 거는 기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

25) ‘김수영’은 ‘김수녕’의 오기(誤記)이다.

26) 88올림픽에서 양궁 남자 단체전, 양궁 여자 단체전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88올림픽찬가>에는 김수녕을 제외하고 양궁 남자 단체전, 양궁 여자 단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선수는 양궁 남자 단체전에 출전한 박성수, 전인수, 이한섭, 양궁 여자 단체전에 출전한 왕희경, 윤영숙 등 5명이다.

27) 「벤존슨 약물복용 「금」 박탈」, 『중앙일보』, 1988년 9월 27일.

해하지만(120행), 존슨의 사례처럼 약물 복용에 의해 ‘정당한 대결(pair play)’이라는 올림픽 이상(Olympic Idea)이 얼룩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화자는 존슨의 약물복용 사건에 관한 일화의 앞뒤에 약물 복용 없이 메달을 획득한 선수 5명의 사례를 진술함으로써, 이들 선수들과 존슨을 대조한다.

먼저, 화자는 소련의 수영 선수 이고르 폴리안스키(Igor Polyansky)(103행), 미국의 수영 선수 맷 비온디(Matthew Biondi)(104행)를 언급한다. 폴리안스키는 남자 1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비온디는 남자 50m 자유형·남자 100m 자유형·남자 4×100m 계영·남자 4×200m 계영·남자 4×100m 혼계영 등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남자 100m 접영에서 은메달, 남자 200m 자유형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여 ‘88올림픽 다관왕’으로 기록되었다. 화자는 폴리안스키, 비온디의 이러한 경기 성적은 “수영에 자신있”(104행)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화자는 소련의 체조선수 엘레나 슈슈노바(Elena Chouchounova), 루마니아의 체조선수 다니엘라 실리바스(Daniela Silivas)를 언급한다. 슈슈노바는 여자 개인종합·여자 단체에서 금메달을, 여자 평균대에서 은메달을, 2단 평행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실리바스는 여자 마루·여자 평균대·여자 2단 평행봉에서 금메달을, 여자 개인종합·여자 단체에서 은메달을, 여자 뜰틀에서 동메달을 차지하였다. 화자는 슈슈노바, 실리바스의 경기 성적에 대해 “슈슈노바 풍만한몸 뛰어난 순발력에 실리바스 고운몸매 그림같은 연기력이 정확하고 선명한건 피땀흘린 노력이라”(113~115행)고 호평하였다.

끝으로, 화자는 대한민국의 양궁 선수 김수녕(金水寧)을 언급한다. 김수녕은 “화랑도의 후손”(116행)으로서 여자개인전·여자단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하였다(117~118행). 이에 대해 화자는 김수녕이 “활시위에 마음실어 쓰느니 십점 만점” 과녁에 화살을 맞출 수 있었고, 나아가 세계 기록까지 세웠음을 말한다.

6. 제6단락 : 다가오는 88올림픽 폐막에 대한 아쉬움 및 88올림픽 이슈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120~130행을 인용한 것이다.

- 120 많은경기 끝나가고 아쉬움만 쌓이는데
- 121 수영장엔 수중발레 환상세계 마련하네
- 122 물속에선 요정(妖精)묘기(妙技) 아름다운 각선미에
- 123 미국팀의 자매듀엣 혼연일치 쌍둥이라

화자는 88올림픽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던 중에 화자는 수중발레 듀엣, 수중발레 듀엣 자유종목 등 2개 종목을 보았다. 이 종목에 출전한 쌍둥이 자매는 미국의 사라 조셉슨(Sarah Josephson), 카렌 조셉슨(Karen Josephson)으로, 전술한 2개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수중발레 듀엣은 두 선수가 물속에서 음악에 맞춰 고난도의 동작이 일치하도록 섬세하게 연기해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때문에 화자는 비슷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쌍둥이 자매가 펼치는 환상적이고 예술적인 연기에 대해 “요정(妖精)묘기(妙技)”(122행)라고 칭찬한다.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 124~130행을 인용한 것이다.

- 124 북한은 어찌하여 불참하니 불행한일
- 125 민족잔치 동참하여 남북통일 힘쓸 것을
- 126 올림픽 종목중에 태권도가 빠졌구나
- 127 시범경기 첫선보여 차기대회 기약하세
- 128 선수촌 숙소담당 자원봉사 하신분들
- 129 곳은일도 친절하게 우리손님 접대하니
- 130 마음이 뿌듯하오 참으로 감사하오

88올림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화자는 88올림픽에 관련된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한다. 북한의 88올림픽 보이콧(124행),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88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서 세계에 첫선을 보인 태권도(126~127행), 선수촌 숙소담당 자원봉사요원 2,700여 명²⁸⁾이 “우리 손님”(129행)인 외국인 선수단에게 봉

28) 「서울 올림픽 선수촌 운영요원 직무 교육」, MBC뉴스, 1988.4.9, <https://imnews.imbc.com>

사한 일(128~129행)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7) 제7단락 : 88올림픽 폐회식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131~164행을 인용한 것이다.

- 131 지나보니 짧구려 十六일도 금방일세
132 보다빨리 보다멀리 보다높이 거뵈보던
133 세계의 젊은이들 모두모두 수고했오
134 이제는 승패넘어 우정을 나눕시다
135 목에는 갖은메달 손에는 태극선을
136 돌아드는 잠실벌에 폐회식의 광파르를
137 고운정 추억속에 아름답게 간직할때
138 에밀레 종소리로 작별공연 시작하니
139 상모를 돌리면서 민속놀이 신명난다
140 이와때를 같이하여 여학생의 리본체조
141 현란한 색색리본 상모속에 묻어드네
142 상모는 우리의것 리본은 서양의것
143 동과서가 한데얼려 그모습이 장관일세
144 어두워진 밤하늘에 은빛으로 달이뜨고
145 견우직녀 전설처럼 오작교가 펼쳐진다
146 만나면 이별이요 이별하면 또만나니
147 명창들의 판소리가 가슴가슴 파고들제
148 구슬픈 뱃노래에 이별의정 실어온다
149 다음번 올림픽은 어디서 열리던가
150 구라과 서쪽나라 스페인의 항구도시
151 잘했구나 서울이여 잘하시오 바르셀로나
152 두나라 무용수가 돌며돌며 강강술래
153 한바탕 흥이나게 춤사위가 이어질때
154 오륜기 인도되고 우리정성 건네주니

- 155 한국의얼 세계의얼 성화가 꺼져간다
- 156 어둠속에 어디선가 애달픈 가락이어
- 157 진도(珍島)에서 밀양(密陽)에서 정선(旌善)에서 경기(京畿)에서
- 158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 159 관중과 선수들이 떠나없이 아리리요
- 160 二十四회 올림픽은 대단원의 막을접고
- 161 청사초롱 들은손이 해어짐을 인도(引導)하니
- 162 한강의 긴물결에 연꽃초롱 실어보내
- 163 인류의 희망이요 평화의 강물일세
- 164 금수강산 우리강토 아름답다 우리조국

88올림픽 폐회식²⁹⁾은 1988년 10월 2일 오후 7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렸다. 88올림픽 폐회식의 시작을 알리는 에밀레중 소리(138행)가 멎자, 리본 체조단과 상모놀이꾼이 각각 서양의 리본과 우리의 상모를 돌리며 한데 어우러지는 <우정> 축제가 있었다(139~143행). <우정> 축제가 끝난 이후, “보다 빨리 보다멀리 보다높이”(132행)라는 올림픽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아래 선의의 경쟁을 했던 각국 선수단이 기수단을 앞세우고 입장하였고, 고대 올림픽 발상국인 그리스, 88올림픽 개최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제25회 대회 개최국인 스페인 등 3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3국기 게양>이 있었다.

<3국기 게양>이 거행된 이후, 조명이 꺼지고 다듬이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S’자 모양의 ‘다리놓기’와 부채춤·바라춤 공연인 ‘빛과소리’로 구성된 <오작교>가 연출되었다(145행). 이어서 관소리 <심청가>의 뱃노래에 맞춰 <떠나는 배>가 공연되었다(147~148행).

박세직 SOOC 위원장의 폐회사,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폐회 선언이 있었다. 이어서 김용래(金庸來) 서울특별시장의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통해 차기 제25회 올림픽 개최 도시 바르셀로나의 파스쿠알 마라갈(Pasqual Maragall) 시장에

29) 88올림픽 폐회식 행사의 순서와 내용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백서 : SEOUL 1988』, 서울특별시, 1990, 125쪽 참조.

게 오륜기를 인도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공연으로 <기 인도무>가 행해졌는데, 이때 스페인 무용수의 ‘사르디냐’ 공연, 대한민국 무용수의 ‘장고춤’ 공연이 차례대로 이어지다가 두 나라의 무용수가 한바탕 어울렸다(152~154행).

오륜기는 하강하였고, 성화는 소화되기 시작하였다(155행). 어둠 속에서 들리는 애달픈 가락에 맞춰 무형문화재 한영숙의 살풀이춤인 <소원>이 시작하였다(156행). 이어서 마지막 행사인 <안녕>이 있었다. 스탠드에서는 관중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Good Bye”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헤어짐을 표현하였다. 이때 청사초롱을 손에 든 남녀 어린이 출연자들이 <진도아리랑>에 맞춰 등불춤을 추었다. 그 사이에 “SEE YOU IN BARCELONA”라는 메시지를 달고 있는 호돌이 모양의 기구,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스코트인 코비(Cobi) 모양의 기구가 한데 어울리면서 공중으로 점점 올라갔다. 각국 선수단과 공연 무용수들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아리랑 노랫가락에 맞춰 함창하면서 강강술래를 추었다(156~159행). 그리고 전광판에는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만남시다”, “SEE YOU IN BARCELONA 1992”라는 문구가 연이어 나왔다. 이처럼 88올림픽 폐막식은 참석자들에게 “만나면 이별이요 이별하면 또만나”(146행)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차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각국 선수단은 출연자들이 청사초롱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을 떠났다(161행). 그리고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앞 한강에 청사초롱으로 장식된 선단을 띄워 한강 하류로 흘러보냄으로써(162행), 각국 선수단의 귀향 길을 밝혔다. 화자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인류의 희망이요 평화의 강물일세/금수강산 우리강도 아름답다 우리조국”(163~164행)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화자는 대한민국이 냉전 체제에서 160개국이 참가한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8) 제8단락 : 88올림픽의 성과 및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비에 대한 의지
다음은 <88올림픽찬가>의 제165~172행을 인용한 것이다.

- 165 우리민족 매운정이 온누리에 서렸으니
- 166 二十五회 올림픽을 전력투구 준비하세
- 167 잘싸웠다 잘이겼다 우리들의 아들딸아
- 168 금메달이 열두개요 은메달이 열개라
- 169 동메달이 열한개에 입상순위 사등했네
- 170 대한민국 국위를 만방에 떨쳤구나
- 171 장하도다 귀하도다 대한의 아들딸들
- 172 우리나라 만세만세 대한민국 만만세여

대한민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여 종합성적 4위로 제24회 88올림픽을 마쳤다(168~169행). 이에 화자는 “우리민족 매운정이 온누리에 서렸”(165행)이니, 차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온 힘을 다해 준비할 것을 강조한다(166행).

또한 화자는 88올림픽에서 종합성적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위를 만방에 떨쳤구나”(170행)라고 감탄한다. 그리고 화자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88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들의 아들딸”(167행), “대한의 아들딸들”(171행), 곧 대한민국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잘싸웠다 잘이겼다”(167행)라고 격려하고, 동시에 “장하도다 귀하도다”(171행)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업적을 높이 치하한다.

4. <88올림픽찬가(讚歌)>의 작가의식

진재강은 작가의식에 대해 “작가 의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자각하는 심신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은 이런 작가 의식을 표출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작가가 처한 시대나 입장, 개별적 성향에 따라 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³⁰⁾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글의 4장에서는 88올림픽에 대한 작가

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88올림픽찬가>에 표출된 작가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실 지향적 기록의식³¹⁾

<88올림픽찬가>에서는 88올림픽을 “잔치”(2행), “단군국조(檀君國祖) 개국 이래 처음있는 경사”(3행), “축제”(4행)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이유로 작가는 국제스포츠대회인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88올림픽의 구석구석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다(89행). 작가의 사실 지향적 기록의식은 <88올림픽찬가>에서 다음의 몇 가지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88올림픽찬가>에는 88올림픽 대회의 참가 규모를 “백육십개 나라에서/이만명 젊은이들(6~7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작가가 160개국 1

30) 전재강, 「태고 보우의 산문과 가음명시(歌吟銘詩)에 나타난 작가 의식의 성격」, 『국어국문학』 제178집, 국어국문학회, 2017, 107쪽.

31) <88올림픽찬가>에 재현된 허구적 시간과 88올림픽의 역사적 시간은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88올림픽찬가>의 제2단락에 재현된 개회식은 실제 개회식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 순서를 바로잡으면, ‘강상제(29행) → 마스게임(39행) → 선수단 입장(19행) → 대한민국 선수단 입장(26행) → 박세직 SOOC 위원장의 대회사(22행) →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환영사(23행) → 노태우 대통령의 개회 선언(24행) → 관중들의 카드섹션(38행) → 오륜기 계양(25행) → 성화 최종 주자 임춘애(15행) → 성화 점화(16행) → <강복과 차일춤>(32~35행) → <정적>(40~41행) → <한마당>(36~37행)’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88올림픽찬가>의 제3단락에 재현된 경기 중 대한민국의 김광선이 출전한 복식 결승전(10월 1일), 김재엽·이경근이 출전한 유도 결승전(각각 9월 25일, 9월 26일), 중국의 자오즈민·천징 조, 대한민국의 양영자·현정화 조가 출전한 여자 탁구 복식 결승전(9월 30일), 이탈리아의 줄리아 스타치올리가 출전한 리듬체조 결승전(9월 30일)은 88올림픽 후반으로 치닫는 9월 25일 이후에 치른 경기이다. 따라서 역사적 시간상 이들 경기를 제3단락에 배치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끝으로, <88올림픽찬가>의 제4단락에 재현된 88올림픽의 폐회식도 실제 폐회식의 순서와 차이가 약간 있다. 그 순서를 바로잡으면, ‘시작을 알리는 에밀레종(138행) → <우정>(139~143행) → 올림픽 캐치프레이즈 “보다빨리 보다 멀리 보다높이” 아래 선수단 입장(132행) → <오작교>(145행) → <떠나는 배>(147~148행) → <기 인도무>(152~154행) → 오륜기 하강 및 성화 소화(155행) → <소원>(156행) → <안녕>(156~159행) →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메시지 전달(146행) → 각국 선수단이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을 떠남(161행) → 청사초롱을 한강 하류로 흘러보냄(162행)’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88올림픽찬가>에는 실제 있었던 일과 다르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작가가 편집자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88올림픽 전반 경기에서 재현한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만 3,626명 선수·임원이 88올림픽에 참가한 사실을 <88올림픽찬가>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88올림픽찬가>에는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84차 IOC 총회, 88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 제작 과정, 올림픽 성화 채화 과정, 88올림픽 개·폐회식 부대행사, 선수 및 선수 가족의 에피소드, 존 벤슨의 약물복용 사건, 북한의 88올림픽 보이콧,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선수촌 숙소 담당 자원 봉사 등 88올림픽에 관계된 에피소드와 이슈가 재현되어 있다.

셋째, <88올림픽찬가>의 제3~5단락에는 88올림픽의 정식 종목 23개 중 양궁·육상·농구·복싱·체조·유도·사격·수영·탁구·역도·레슬링 등 11개 종목, 시범 종목 3개 중 태권도 1개 시범 종목을 재현되어 있다.

넷째, <88올림픽찬가>에는 88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중 29명³²⁾ 선수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자넷 에반스(48행)·미셸 미첼(50행)·안젤라 스타슈레비치(51행)·쑤 안메이(52행)·김광선(56행)·변정일(56행)·안대현(57행)·전병관(58행)·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62행)·박찬숙(64행)·던컨 암스트롱(67행)·미트코 그라블레프(67행)·크리스틴 오토(68행)·김영남(69행)·차영철(71행)·하형주(72행)·김재엽(73행)·이경근(74행)·자오즈민(76행)·천징(76행)·양영자(77행)·현정화(77행)·줄리아 스타치올리(85행)·이고르 폴리안스키(103행)·맷 비온디(104행)·벤 존슨(105행)·엘레나 슈우노바(112행)·다니엘라 실리바스(113행)·김수녕(118행)

다섯째, <88올림픽찬가>에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선수들이 13명이 있다. 하지만 작가는 그들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네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영국의 부부선수 자유소총 명

32) <88올림픽찬가>에서 실명이 명시된 선수 중 김수녕은 “양궁천재 김수영(金水寧)의 이관 왕에 세계기록”(118행)과 같이 양궁 여자 개인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김수녕을 중복인원으로 간주하고 1명으로 계산한 결과, 실명이 거론된 선수의 수는 29명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88올림픽찬가>에 등장하는 각 종목별 참가 선수의 실명은 이 글의 <부록 1> 참조.

사수라/금메달 목에거니”(83~84행)”를 통해 소총 종목에 출전한 영국 출신의 부부선수가 말콤 쿠퍼·사라 쿠퍼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팀의 자매듀엣 혼연일치 쌍둥이라”(123행)를 통해 쌍둥이 자매가 사라 조셉슨·카렌 조셉슨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케냐선수 검은돌풍/육상에서 잘도달려 금메달을 잘도판다”(97~98행)를 통해 케냐의 육상 금메달리스트가 폴 에랭·피터 로노·존 옹구카·줄리우스 카리우키 등 4명임을 추정할 수 있다.³³⁾ 끝으로, 양궁 종목의 경기 결과를 서술하는 대목에서 “남녀모두 단체전서 세계시선 끌었구나”(119행)를 통해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성수·전인수·이한섭 등 3명,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수녕·왕희경·윤영숙 등 3명을 상기할 수 있다.

한편, 작가는 88올림픽이 종반에 치닫기 전에 “감기몸살 오욕일”(90행)을 알렸다. <88올림픽찬가>에 형상화된 88올림픽 경기를 살펴보면, 9월 27일과 9월 28일에 열린 경기는 없다.³⁴⁾ 9월 27일, 9월 28일 전후 경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 <88올림픽찬가(讚歌)>에 재현된 1988년 9월 25일~10월 1일 경기³⁵⁾

일자	경기	경기 선수
9월 25일	육상 여자 100m 결승전	8
	수영 여자 50m 자유형 결승전	
	유도 남자 엑스트라 라이트급 -60kg 결승전	
	수영 남자 4×100m 혼계영	
	기계체조 여자 이단평행봉 결승전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 결승전	
	기계체조 여자 마루 결승전	
	기계체조 여자 도마 결승전	

33) 이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88올림픽찬가>에 실명이 명시된 선수는 29명(중복인원 ‘김수녕’ 1명 제외), <88올림픽찬가>에 제공된 정보를 통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선수는 9명이다. 여기에 케냐의 육상 금메달리스트 4명을 포함하면, 작가가 <88올림픽찬가>에 등장시킨 선수의 수는 42명임을 추고할 수 있다.

34) 이 글의 <부록1> 참조.

35) 이 글의 <표 2>는 <부록 1>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일자	경기	경기 건수
9월 26일	유도 하프라이트 급-65kg 결승전	2
	남자 800m 결승전	
9월 27일	-	0
9월 28일	-	0
9월 29일	육상 여자 200m 결승전	1
9월 30일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	4
	리듬체조 결승전,	
	남자 3,000m 장애물 결승전,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전	
10월 1일	복싱 플라이급-51kg 결승전	9
	육상 여자 4×100m 계주 결승전	
	유도 헤비급 -95kg 결승전	
	육상 남자 1,500m 결승전	
	육상 남자 5,000m 결승전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전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전	
	수영 수중발레 듀엣 자유종목 결승전	
	수영 수중발레 듀엣 결승전	

위의 <표 2>와 같이, <88올림픽찬가>에 재현된 9월 25일 경기는 8건, 9월 26일 경기는 2건, 9월 27일 경기는 0건, 9월 28일 경기는 0건, 9월 29일 경기는 1건, 9월 30일 경기는 4건, 10월 1일 경기는 9건이다. 이처럼 9월 27일, 9월 28일 전후인 9월 26일, 9월 29일, 9월 30일에 치른 경기 수는 9월 25일, 10월 1일에 치른 경기 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의거하여 작가가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감기 몸살을 앓았고, 이 기간 중 9월 27일, 9월 28일에 심하게 아팠던 것으로 추정된다. 67세 고령인 작가는 감기 몸살로 정신이 아찔하여 붓이 더 나아가지 않았지만, 88올림픽에 대한 기록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작가가 감기 몸살로 “좋은경기를 다놓쳤”(90행)던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고된다.

2) 국제화 의식 및 세계시민 의식

88올림픽에는 160개국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그중 <88올림픽찬가>에 등장하는 88올림픽 참가 국가별 선수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3> <88올림픽찬가(讚歌)>에 등장하는 88올림픽 참가 국가별 선수의 수³⁶⁾

구분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합계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소련	영국	이탈리아	대한민국	중국	미국	캐나다	케냐		호주
선수수	1	1	1	3	2	1	18	3	6	1	4	1	42

위의 <표 3>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88올림픽찬가>에 등장하는 88올림픽 참가 국가의 수는 12개국이고 선수의 수는 42명인데, 그중 대한민국 선수가 18명으로 가장 많다. 둘째, <88올림픽찬가>에 등장하는 국가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 6개 국가, 아시아-아메리카 각 2개 국가, 아프리카-오세아니아 각 1개 국가로 정리할 수 있다. 셋째, <88올림픽찬가>가 창작된 1988년은 냉전 시대인데, <88올림픽찬가>에 등장하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는 영국·이탈리아·캐나다·대한민국·미국·케냐·호주 등 7개 국가이고, 공산주의 진영 국가는 동독·루마니아·불가리아·소련·중국 등 5개 국가이다. 이처럼 <88올림픽찬가>에는 각 대륙별 1개 이상 국가가 등장하고, 자유주의 진영 국가와 공산주의 진영 국가가 7:5 비율로 나타난다. 곧 <88올림픽찬가>에는 어느 한 대륙만 누락되어 있거나 특정 이념, 특정 체제의 국가만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국제화 의식, 세계시민 의식을 지녔음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88올림픽찬가>에 “화합”(5행), “오류”(8행), “평화”(15행/169행), “세계인”(18행), “우정”(134행) 등의 시어, “백육십개 나라”(7

36) 이 글의 <표 3>은 <부록 2>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행), “오십억 지구가족”(20행), “체제이념 초월”(21행), “동과서가 한테얼려”(149행), “한국의얼 세계의얼”(161행)이라는 구절을 활용하는 일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3) 민족의식 및 남북통일への 염원

88올림픽이 개최되던 시기에는 냉전이 종식되어 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 진영 국가 중 동독·루마니아·불가리아·소련·중국 등이 88올림픽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북한, 쿠바, 마다가스카르는 88올림픽 보이콧을 하였다.

북한이 88올림픽에 불참하게 된 연유는 1988년 1월 12일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소련이 서울 올림픽 참가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온갖 방해책동을 해온 북한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중략) 북한은 지난 81년 9월 한국이 올림픽을 유치한 직후부터 공산권과 제3세계를 대상으로 서울 올림픽 불참운동을 전개하며 개최지 변경을 요구했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북한은 엉뚱하게 88올림픽의 공동개최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방해공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올림픽은 1개국, 1개 NOC에서만 개최가 가능하다」는 IOC현장에 정면도전한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소련·중공 등 공산권은 물론 비동맹국 정상회담에서도 냉담한 반응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IOC측은 서울 올림픽을 12년 만에 동서화합의 축제로 이끌고 북한에 참가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84년 10월 일부종목의 북한분산개최 가능성을 제의했다. 이어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85년 10월 제1차 남북한 체육회담을 로잔에서 주선, 일부종목의 북한분산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23개 종목 중 8개 종목의 북한 배분과 함께 「제88회서울·평양올림픽」이라는 공동개최의 명칭을 고집함으로써 비난을 받아왔다. 이후 IOC 주재하에 지난해 7월까지 네 차례의 남북한 체육회담이 개최됐으나 북한이 엉뚱한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중략) 남북한 단일 팀 구성도 시기적으로 촉박해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³⁷⁾

37) 「외토리 북한, 불참고집 할 듯」, 『중앙일보』, 1988년 1월 12일.

위의 인용문과 같이, 북한은 88올림픽 서울 유치 이후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 제3세계를 대상으로 88올림픽 보이콧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자 북한은 IOC에 「제88회서울·평양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개최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였다.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북한은 1988년 9월 3일 88올림픽 개막을 13일 앞두고 로이터(Reuter) 통신을 통해 88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하였다.³⁸⁾

이에 대해 작가는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북한은 어찌하여 불참하니 불행한 일/민족잔치 동참하여 남북통일 힘쓸 것을”(124~125행)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작가는 북한이 88올림픽에 참가하였다면, 88올림픽은 민족잔치가 되었을 것이고, 나아가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긴다. 작가의 이러한 진술은 민족의식, 남북통일에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88올림픽 성공에 대한 자부심 및 국가주의 세계관³⁹⁾

대한민국이 종합성적 4위로 88올림픽을 마무리하였기에, 작가는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잘싸웠다 잘이겼다 우리들의 아들딸야”(167행), “대한민국 국위를 만방에 떨쳤구나/장하도다 귀하도다 대한의 아들딸들”(170~171행), “우리나라 만세만세 대한민국 만만세여”(172행)라고 발화한다. 이로써 작가는 88올림픽 성공에 대한 자부심, 나아가 국가주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이상(Olympic Idea)은 우정, 결속, 정당한 대결이라는 점, 올림픽 정신(Olympic Spirit)은 올림픽 이상을 토대로 상호 이해하고 경기에서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않고 경기에 참가하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 이 점을

38) 「북한, 서울올림픽 불참 공식 선언」, MBC뉴스, 1988.9.3., https://imnews.imbc.com/replay/1988/nwdesk/article/1813431_29513.html(검색일 : 2021.7.13.)

39) 익명의 심사자는 고단이 <88올림픽찬가>에서 국가주의적 성향의 논조를 전개한다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익명의 심사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4.4)의 논의를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상기한다면, 88올림픽 성공에 대한 작가의 자부심, 국가주의 세계관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의 (가)는 <88올림픽찬가> 제3단락의 일부이고, (나)는 제8단락의 일부이다.

(가) 72 유도왕자 하형주(何亨柱) 일본아성 깨뜨리소

(중략)

76 중국탁구 간판스타 자오즈민 진정(陳靜)조(組)가

77 양영자(梁英子) 현정화(玄靜和)의 환상적인 그름씨에

78 감당할길 전혀없지 한수배워 물러가네

79 유도탁구 경기장에 태극기가 높이올라

80 중국탁구 일본유도 고개숙여 눈물짓네

(나) 165 우리민족 매운정이 온누리에 서렸으니

위의 인용문과 같이, (가)는 대한민국 선수는 중국 탁구 선수, 일본 유도 선수를 이겨 금메달을 획득하고, 중국 탁구 선수와 일본 유도 선수는 대한민국 선수에게 패배하여 고개 숙여 눈물짓고 도리어 한 수 배우고 물러간다고 언술한다. 비록 작가가 화자의 목소리를 빌렸지만, 작가의 이러한 언술은 올림픽 이상인 우정, 결속과 거리가 멀고, 상대를 이기려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고 경기 참가에 의의를 둔다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 또한 올림픽을 통해 인류의 화합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우리민족 매운정이 온누리에 서렸”다는 발언은 인류의 화합과 진보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가), (나)는 올림픽 정신, 올림픽 이상, 올림픽 목적과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다.

이상과 같이, <88올림픽찬가>에는 사실 지향적 기록의식, 국제화 의식 및 세계시민 의식, 민족의식 및 남북통일예의 염원, 88올림픽 성공에 대한 자부심 및 국가주의 세계관과 같은 작가의식이 나타난다. 그중 사실 지향적 기록의식은 고단의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는 작가의식이라면, 국제화 의식 및 세계시민 의식, 민족의식 및 남북통일예의 염원, 88올림픽 성공에 대한 자부심 및 국가

주의 세계관은 88올림픽과 냉전 체제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88올림픽찬가>는 행사가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5. 맺음말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는 ‘제34회 도쿄올림픽’이 열렸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서울에서는 88올림픽이 열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올림픽에서는 세계인이 화합하는 축제의 마당이 펼쳐진다. 고단은 1988년 세계인의 잔치인 88올림픽을 소재로 <88올림픽찬가>를 지었다. <88올림픽찬가>의 내용과 작가의식을 살펴본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88올림픽찬가>의 내용은 88올림픽의 기본 이념, 대회 참가 규모, 88올림픽의 서울 유치, 준비 과정, 개회식, 전반기 경기 결과, 에피소드와 이슈, 폐회식, 88올림픽의 성과,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비에 대한 의지로 파악된다. 둘째, <88올림픽찬가>의 작가의식은 사실 지향적 기록의식, 국제화 의식 및 세계시민 의식, 민족의식 및 남북통일에의 염원, 88올림픽 성공에 대한 자부심 및 국가주의 세계관 등 네 가지로 대별된다.

한편, 고단의 가사 작품 중 2002년 제17회 한일 월드컵 축구 평가전을 소재로 하는 <월드컵 축구 평가전>이 있다. <88올림픽찬가>와 <월드컵 축구 평가전>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소고당의 관심과 지구촌 시대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살펴보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후속연구로 제언한다.

참고문헌

- <88올림픽찬가(讚歌)> : 고단, 『紹古堂歌辭集』上, 『紹古堂閨房歌辭集』 卷之上, 한국가사문학관 한국가사문학DB(<http://gasa.go.kr/>)
- <88올림픽찬가(讚歌)> : 고단, 『平化四時詞-소고당 고단 규방가사 선집』, 장흥 별곡문학동인회 편, 시와 사람, 2013, 93~101쪽.
- 『88올림픽 서울誘致 結果 報告』, 1981.1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제스포츠타대회(<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49165601>)
- 『'86아시아'88올림픽 大會 總合計劃』, 1982.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제스포츠타대회(<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49165594>)
- 『서울올림픽의 意義와 成果』, 1989.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제스포츠타대회(<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Id=0001299934>)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백서 : SEOUL 1988』, 서울특별시, 1990, 서울도서관(<https://lib.seoul.go.kr/>)
- 『제5장:문화·외교』, 『한국외교 60년:1948~2008』, 외교통상부, 2009, 292쪽, 외교부(<https://www.mofa.go.kr/>)
- 『88 올림픽과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8, 서울도서관(<https://lib.seoul.go.kr/>)
-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국제올림픽위원회(<https://www.olympic.org/seoul-1988>)
- 서울올림픽자료실(<https://library.kspo.or.kr/index.do>)
- 중앙일보(<https://news Joins.com/>)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https://olympics.com/ioc>)
- MBC뉴스(https://imnews.imbc.com/pc_main.html)
- 김기영, 「<제주도(濟州道) 기행(紀行)>과 <제주여행가>의 작품 실상과 현대적 의미」, 『어문연구』 102, 어문연구학회, 2019.
(DOI : 10.17297/rsll.2019.102..003)
- 김정화, 「현대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과 시사적 의미 : 광복 이후의 작품을 중

- 심으로, 『古典文學研究』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UCI : G704-000294.2007..32.012)
- 김정화, 「二隱村, 紹古堂, 素亭 歌辭의 主題 具現 樣相과 形態論的 研究」, 『동아인문학』 12, 동아인문학회, 2007.
- 박요순, 「紹古堂 高端과 그의 歌辭研究」, 『한남어문학』 30,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6.
- 성낙희, 「紹古堂歌辭論」, 『지역학논집』 3,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1999.
- 이상우, 「서울올림픽과 外交·安保」, 『서울올림픽의 意義와 成果』, 한국개발연구소, 1989.
- 전재강, 「태고 보우의 산문과 가음명시(歌吟銘詩)에 나타난 작가 의식의 성격」, 『국어국문학』 제178집, 국어국문학회, 2017, 107쪽.
(UCI : G704-000019.2017..178.007)
- 정인숙, 「근현대 여성 가사에 나타난 역사서술의 특징과 그 의미-은촌 조애영, 소고당 고단, 소정 이휘의 작품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54, 한국고전문학회, 2018.
(DOI : 10.17838/korcla.2018.54.285)
- 정인숙, 「소고당가사에 나타난 ‘평화’ ‘고현’ ‘산외’의 장소성과 그 의미」, 『국제어문』 81, 국제어문학회, 2019.
(DOI : 10.31147/IALL.81.4)
- 허미자, 「現代 女性歌辭에 나타난 傳統意識-趙愛泳·高端-」, 『돈암어문학』 8, 돈암어문학회, 1996.

| Abstract |

Contents and Author's Consciousness in Sogodang Go Dan's <The 1988 Olympic Games Anthem>

Kim, A-yun

Sogodang Godan(高端, 1922~2009) composed on The 1988 Olympic Games Anthem, Games of the XXIV Olympiad Seoul 1988(The 1988 Olympic Games) in the fall of 1988, 172 lines of Gasa <The 1988 Olympic Games Anthem>. Accordingly, it is a Modern Gasa in terms of time, Women's Gasa in terms of author, Event Gasa in terms of content, and long-length Gasa in terms of volume. It has represented the basic ideology of the 1988 Olympic Games, the scale of participation in the Olympic Games, Seoul's bid to host the 1988 Olympic Games, preparation process, opening ceremony, first half game results, episodes, issues, closing ceremony, achievements of the 1988 Olympic Games and preparation for the 25th Barcelona Olympics understood as a will. The author's consciousness of it can be divided into four main categories: fact-oriented recording consciousness,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 citizenship, national consciousness and aspi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pride in the success of the 1988 Olympic Games.

Key words : Sogodang, Go Dan, The 1988 Olympic Games Anthem, Event Gasa, The 1988 Olympic Games Anthem, Games of the XXIV Olympiad Seoul 1988(The 1988 Olympic Games)

<부록 1> <88올림픽찬가(讚歌)>에 재현된 정식 종목 경기 및 출전 선수40)

행 번 호	종목	세부 종목	선수명	국적	최종경기	
					일자	결과
48	수영	여자 400m 개인혼영	자넷 에반스 (Janet Evans)	미국	9.19.	금메달
50	수영	여자 다이빙 플랫폼	미셸 미첼 (Michele Mitchell)	미국	9.18.	은메달
51	수영	여자 다이빙 플랫폼	안젤라 스타슈레비치 (Anjela Stassioulevitch)	소련	9.18.	4위
52	수영	여자 다이빙 플랫폼	쑤 안메이(許艷梅)	중국	9.18.	금메달
56	복싱	플라이급 -51kg	김광선(金光善)	대한 민국	10.1.	금메달
56	복싱	밴텀급 -54kg	변정일(邊丁一)	대한 민국	9.22.	16강 패
57	레슬 링	62kg급 그레코로만형	안대현(安大鉉)	대한 민국	9.20.	동메달
58	역도	52kg급	전병관(全炳寬)	대한 민국	9.18.	은메달
62	육상	여자 100m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 (Florence Griffith Joyner)	미국	9.25.	금메달
62	육상	여자 200m		미국	9.29.	금메달
62	육상	여자 4×100m 계주		미국	10.1.	금메달
64	농구	여자 농구	박찬숙(朴贊淑)	대한 민국	9.28.	7~8위 결정전 승
67	수영	남자 200m 자유형	던컨 암스트롱 (Duncan Armstrong)	호주	9.19.	금메달
67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호주	9.23.	은메달
67	역도	56kg급	미트코 그라블레프 (Mitko Grablev)	불가 리아	9.19.	금메달 박탈 (약물 복용)

40) <88올림픽찬가>는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변정일, 박찬숙, 하형주를 제외하고 대체로 결승전 결과를 재현한다. 이 글의 <부록 1>에 수록한 표는 <88올림픽찬가>에 재현된 내용과 88올림픽 종목별 경기 일정, 경기 결과를 대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 결과, 11개 종목 42명 선수를 <표>로 정리하였다. 종목별 경기 일정, 경기 결과는 서울올림픽자료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울올림픽대회공식보고서를 참조(서울올림픽자료실 서울올림픽대회공식보고서, <https://library.kspo.or.kr/library/library01.do>(검색일 : 2021년 7월 12일)). 한편, 선수명 앞에 삽입된 약호(*)는 작가 고단이 <88올림픽찬가>에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선수를 표시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행 번 호	종목	세부 종목	선수명	국적	최종경기		
					일자	결과	
68	수영	여자 100m 자유형	크리스틴 오토 (Kristin Otto)	동독	9.19.	금메달	
68	수영	여자 100m 배영		동독	9.22.	금메달	
68	수영	여자 4×100m 계영		동독	9.22.	금메달	
68	수영	여자 100m 접영		동독	9.23.	금메달	
68	수영	여자 4×100m 혼계영		동독	9.24.	금메달	
68	수영	여자 50m 자유형		동독	9.25.	금메달	
69	레슬링	74kg급 그레코로만형	김영남(金永南)	대한민국	9.21.	금메달	
71	사격	남자 소구경 자유 소총 복사	차영철(車榮哲)	대한민국	9.19.	은메달	
72	유도	헤비급 -95kg	하형주(何亨柱)	대한민국	10.1.	준결승 패	
73	유도	엑스트라 라이트급 -60kg	김재엽(金裁華)	대한민국	9.25.	금메달	
74	유도	하프 라이트급 -65kg	이경근(李璟根)	대한민국	9.26.	금메달	
76	탁구	여자 복식	자오즈민(焦志敏)	중국	9.30.	은메달	
76	탁구	여자 복식	천징(陳靜)	중국	9.30.	은메달	
77	탁구	여자 복식	양영자(梁英子)	대한민국	9.30.	금메달	
77	탁구	여자 복식	현정화(玄靜和)	대한민국	9.30.	금메달	
83	사격	여자 공기소총	부부 선수	*사라 쿠퍼 (Sarah Cooper)	영국	9.18.	33위
83	사격	남자 소구경 자유 소총 3자세		*말콤 쿠퍼 (Malcolm Cooper)	영국	9.22.	금메달
85	체조	리듬체조	줄리아 스타치올리 (Giulia Staccioli)	이탈리아	9.30.	종합 18위	

행 번 호	종목	세부 종목	선수명	국적	최종경기		
					일자	결과	
97	육상	남자 800m	금메달 리스트	*폴 에렝 (Paul Ereng)	케냐	9.26.	금메달
97	육상	남자 3,000m 장애물		*줄리우스 카리우키 (Julius Kariuki)	케냐	9.30.	금메달
97	육상	남자 1,500m		*피터 로노 (Peter Rono)	케냐	10.1.	금메달
97	육상	남자 5,000m		*존 응구기 (John Ngugi)	케냐	10.1.	금메달
103	수영	남자 100m 배영	이고르 폴리안스키 (Igor Poliansky)	소련	9.24.	동메달	
104	수영	남자 200m 자유형	맷 비온디 (Matthew Biondi)	미국	9.19.	동메달	
104	수영	남자 4×200m 계영		미국	9.21.	금메달	
104	수영	남자 100m 접영		미국	9.21.	은메달	
104	수영	남자 100m 자유형		미국	9.22.	금메달	
104	수영	남자 4×100m 계영		미국	9.23.	금메달	
104	수영	남자 50m 자유형		미국	9.24.	금메달	
104	수영	남자 4×100m 혼계영		미국	9.25.	금메달	
105	육상	남자 100m		벤 존슨 (Benjamin Jonson)	캐나다	9.24.	금메달 박탈 (약물 복용)
112	체조	여자 단체	엘레나 슈슈노바 (Elena Chouchounova)	소련	9.19. ~ 9.21.	금메달	
112	체조	여자 개인 종합		소련	9.23.	금메달	
112	체조	여자 이단평행봉		소련	9.25.	동메달	
112	체조	여자 평균대		소련	9.25.	은메달	

행 번 호	종목	세부 종목	선수명	국적	최종경기		
					일자	결과	
113	체조	여자 단체	다니엘라 실리바스 (Daniela Silivas)	루마 니아	9.19. ~ 9.21.	은메달	
113	체조	여자 개인 종합		루마 니아	9.23.	은메달	
113	체조	여자 마루		루마 니아	9.25.	금메달	
113	체조	여자 평균대		루마 니아	9.25.	금메달	
113	체조	여자 이단평행봉		루마 니아	9.25.	금메달	
113	체조	여자 도마		루마 니아	9.25.	동메달	
118	양궁	여자 개인		김수녕(金水寧)	대한 민국	9.30.	금메달
118	양궁	여자 단체	대한 민국		10.1.	금메달	
119	양궁	여자 단체	*왕희경(王喜敬)	대한 민국	10.1.	금메달	
119	양궁	여자 단체	*윤영숙(尹永淑)	대한 민국	10.1.	금메달	
119	양궁	남자 단체	*박성수(朴成洙)	대한 민국	10.1.	금메달	
119	양궁	남자 단체	*전인수(田仁秀)	대한 민국	10.1.	금메달	
119	양궁	남자 단체	*이한섭(李漢燮)	대한 민국	10.1.	금메달	
123	수영	여자 수중발레 듀엣 자 유종목	쌍둥이 자매	*사라 조셉슨 (Sarah Josephson)	미국	10.1.	금메달
123	수영	여자 수중발레 듀엣		*카렌 조셉슨 (Karen Josephson)	미국	10.1	은메달

<부록 2> <88올림픽찬가(讚歌)>에 등장하는 참가 국가별, 정식종목별 선수의 수

구분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참가 국가별 선수 수 합계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소련	영국	이탈리아	대한민국	중국	미국	캐나다	케냐		호주
수영	1			2			1	5			1	10	
복싱						2						2	
레슬링						2						2	
역도			1			1						2	
육상								1	1	4		6	
농구						1						1	
유도						3						3	
사격					2	1						3	
탁구						2	2					4	
체조		1		1		1						3	
양궁						6						6	
정식 종목별 선수 수 합계	1	1	1	3	2	1	18	3	6	1	4	1	42